

이긴자 일대기 【7】

개운조사의 행적을 비추어보아 누가 생미륵불인지 분별할 수 있어

불법(佛法)을 닦으면 죽음에서 해탈할 수 있다

개운조사(開雲祖師)의 행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희성님이 신앙촌과 밀실에서 어떤 방식의 연단 과정을 통해 성도(成道)하여 유교의 정도령(正道令), 불교의 생미륵불, 선교의 이긴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유불선(儒佛仙)을 합일하는 주인공으로 나오게 될 것인지 알 수 있다.

개운조사는 경북 상주 개운동에서 출생하였는데, 부친은 김(金)씨이고 모친은 양(楊)씨였다. 부모님들께서 품에 일양(一陽) 금성(金星)을 안는 태몽을 꾸고 잉태하셨다고 한다. 일양이면 태양이요 금성이면 새벽별이다. 그렇다면 장차 생미륵불이 태양의 운을 타고 새벽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조희성님은 경기도 김포 감정리(坎井里)에서 태어나셨는데, 1981년 신미생으로 양의 해에 음력 6월이 되는 양의 달에 태어났기에 양 중의 양으로서 선도에서 구세주로 상징하는 양으로 오셨다. 또한 28일이 되는 별수 날에 계다가 새벽 4시에 태어났기에 빛날 희(熙)자 별 성(星)자의 '희성'이라는 이름을 천도교인 외할아버지가 작명하셨는데, '이긴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는 예언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주창하심이 있었다고 한다.

세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다섯 살에 어머니마저 여윈 개운조사를 외삼촌 집에서 데려다가 아들처럼 길렀다. 그런데 외삼촌도 개운조사 일곱 살에 돌아가시자 삼주(喪主)가 되어 삼년상(三年喪)을 치렀다. 삼년상을 치르던 2년째 되던 해에 외숙모도 돌아가시자 외숙모의 삼년상까지 치렀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효심에 크게 감동하여 개운조사를 양효동(楊孝童)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아홉 살에 외숙모마저 여의고 고아가 된 개운조사는 인생의 무상(無常)함을

빠져리게 느꼈다고 한다. 자신을 낳으신 부모님과 자신을 길러주시던 친척의 목숨을 앗아간 <죽음>이 너무도 두려웠고 싫었다. 죽음을 이기는 길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이 없다는 표정으로 대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비웃는 사람도 많았다. 주변 사람들은 개운조사의 머리가 좀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개운조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낯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질문을 던졌다. 하루는 어느 스님을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 스님이 대답하기를, "불법(佛法)을 닦으면 죽음에서 해탈할 수 있다." 라고 대답해 주었다. 스님의 대답은 개운조사한테 크나큰 광명이었다. 개운조사는 너무나 기뻐 외숙모의 첫 번째 제사를 지낸 다음, 곧바로 출가(出家)했다. 이때 그의 나이, 열세 살이었다. 개운조사가 출가하여 찾아가던 절은 문경의 봉암사였다.

기필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전 인류를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버리고 말리라

이쯤에서 미륵여래께서 사람 몸을 입고 현신하신 조희성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본다. 주님은 중학교 시절부터 인생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되는 일이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설날그믐날 밤늦도록 옷돌이를 하면서 같이 놀던 친구가 이른날 아침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것이었다. 그 경험은 큰 충격과 슬픔을 불러일으켰다. 어쩌다 그 친구의 어머니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 아들을 떠올리면서 영영 우수곤 하였다.

주님은 그때부터 삶과 죽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밤중에 종종 마을 뒷동산 중구봉산(重九峰山)에 올



▲ 회리 바람을 일으키는 모양으로 회전하는 곡선 광선의 감로이슬성신

라가 마을과 넓은 들판을 내려다보고 "왜 사람은 고생 고생하다가 죽는가? 안 죽을 수는 없을까? 산에 풀과 잔디는 시들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는데, 죽은 내 친구는 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가? 어쩌서 인간의 생명은 죽으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이별을 해야만 하는가?" 하며 깊이 생각에 잠기곤 하였다.

그래서 조희성 주님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파헤치고자 유명한 철학서적을 거의 다 읽어 보았다. 그러나 그 모든 철학서적들이 수준 이하로 느껴졌다. 그 중에서 낯선 것이 톨스토이의 저서였으나 그 속에도 모순이 있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기때 세상 사람들은 흔히 '영적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마음먹는 대로 된다'는 평범한 말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어린 시절에 깨달았다. 그것은 세상 모든 일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 생각하고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죽음을 싫어하고 행복을 영위하고

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원래부터 영생을 누렸고 행복하게 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은 일찍이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틀림없이 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항상 가득 차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해서 안 될 일이 어디 있으며, 불가능이란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굳어져 올라왔던 것이다. 주님에게는 '기필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전 인류를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버리고 말리라' 하는 마음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너는 마음을 행복 받았으니 도를 전해 받아도 되느니라

다시 개운조사의 이야기로 되돌아가면, 출가한 문경의 봉암사에는 해암선사(懸庵禪師)가 주석(住錫)하고 있었다. 해암선사가 개운의 머리를 깎아 주었다. 개운은 해암선사의 사지(侍子)가 되어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한때 해암선사도 일 년 후에 입적했다. 개운은 혈육뿐 아니라, 스승까지도 너무 어린 나이에 잃었다. <죽음>은 이제 개운조사가 풀어야 할, 일생의 화두(話頭)가 되었다. 개운은 해암선사가 입적한 뒤에

도 6년 동안 봉암사에 머물러 불법(佛法)을 닦았다. 그리고 열아홉 살 때 큰스승을 찾아 봉암사를 떠났다. 개운이 만나고자 하는 '큰스승'은 도(道)를 완성한 이였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대도인(大道人)을 찾아서 십여 년 동안 방방곡곡을 두루 헤맸다. 발이 닳도록 명산대찰 이곳저곳 떠돌아다녔다. 하지만 간절히 고대하는 스승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개운은 '쓸데없이 쇠신(錫)으로 엮어 소에게 신기는 짚신만 달게 하며 분주히 돌아다닌다'는 고승의 시를 읽었다.

꼭 자기 처지를 말하는 것 같았다. 개운은 문득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 봉암사로 돌아왔다. 이때 그의 나이 삼십이었다. 본사로 돌아와서는 산내 암자인 환적암에 머물며 수행에 전념했다. 침식도 자주 거르며 열심히 기도하고 참선했다. 한때, 기도나 참선 중에 온갖 환상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었다. 미색(美色: 어여쁜 여인)이 앞에 나타나거나 천악(天樂: 아름다운 음악)이 귀에 들리기도 하며 사나운 호랑이가 뒤따라오거나 큰 뱀이 몸을 휘감기도 하며 황금과 비단이 방에 가득하거나 도적이 문을 부수기도 하며 그 밖에 기쁘고 두렵고 믿음을 흔들고 의심이 들게 하는 등의 마사(魔事; 마귀의 시험)들도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개운은 그 어떤 유혹에도 동요하지 않았고 그 어떤 두렵고 무서움을 당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직(正直)만을 고수(固守)하면서 계(戒)·정(定)을 성실하게 수련하였다.

온갖 환상과 싸우며, 어느덧 일 년을 보냈다. 하루는 웬 미치광이 문둥이 스님이 환적암을 찾아왔다. 그가 입은 옷은 다 떨어진 누더기였고 그의 몸은 부스럼으로 뒤덮여 있었다. 부스럼에서는 진물이 졸졸 흘렀다. 또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다. 개운은 이 스님을 공경히 맞아 함께 살며 잘 봉양

했다. 문둥이 스님은 행패도 아주 심했다. 특하면 욕설을 퍼붓고 개운을 마구 때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개운을 칭찬하기도 했다.

개운의 마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고요했다. 맞아도 속상하지 않았고, 칭찬을 들어도 즐겁지 않았다. 마음은 언제나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문둥이 스님과 함께 지낸 지 한 달쯤이 지나서였다. 어느 날 그 문둥이 스님이 개운 앞에 나타났는데 별안간 금빛으로 화하여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금빛으로 변한 문둥이 스님이 묻기를, "내가 네 스승이 될 만하지 않겠느냐?" 하니 개운이 그 자리에서 백배사례(百拜謝禮)하며, "과연 스승님이십니다." "너는 이제 도(道)를 닦을 그릇이 되었다. 때려도 싫어하지 아니하고 칭찬해도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을 항복 받았으니 도를 전해 받아도 되느니라."

그러하여 그밤에 이끄는 대로 좇아 뒷산으로 올라가니 별안간 사방이 대낮같이 밝아지며 어느새 바위 위에 한 집이 생겼으므로, 그 위에 올라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때가 되면 하늘에서 밥이 와서 그것을 먹으며 처음으로 세상에서 해보지 못한 공부를 하게 되었다. 7일 만에 책 세 권을 내놓으면서 그 문둥이였던 스님이 자신의 내력을 말했다.

"나는 중국의 불공화상(佛供和尚)이다. 너의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극진한 고로 내가 문둥이 모습으로 너를 시험하였노라. 이 책을 공부하되 지금은 알릴 때가 아니요 150년 이후에 세상에 전해야 할 책이니라."

이 말인즉슨 앞으로 생명성수지도(性命雙修之道)를 펼치는 진인이 강중산 선생의 예언대로 판 밖에서 나오시어 피의 원리에 의한 영육일체설을 논하면서 사람의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전한다는 것이다.

상단에 이어서

마사(魔事: 마귀의 시험)들

개운조사가 겪었던 마사(魔事; 마귀의 시험)들을 조희성님은 실제 생활 속에서 겪었다. 11년간 군인장교 생활을 하고 퇴직금을 받은 것을, 와이프를 장사한다는 사람한테 사기당하여 몽땅 잃게 되었다. 국민(忠)학교 선생 자격증을 보여주니까 백 프로 믿었던 것이다. 사기당한 다른 사람들은 씩씩거리면서 "이놈의 새끼 잡으면 죽인다." 하고 난리가 났지만, 조희성님은 '초등학교 선생 노릇 20년 동안 한 사람이 얼마나 돈이 없었기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이런 짓을 했을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속상해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개운조사의 방에 황금과 비단으로 가득차게 한 마귀의 유혹과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자. 군입대하기 전 대학생 시절의 조희성님은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잘 아는 장로님을 만나 그분의 소개로 미군 흥만 경비대에 취직하였다. 부산 부두의 미군 통역관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는 전쟁 중이라 미국에서 많은 군수물자와 구호물자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많은 한국인 보금관들과 관계자들이 빼돌려 사들이어 착복하였다. 그때 조희성님은 유망한 영어 솜씨로 미군에게 인정을 받은 고로 모든 물자 반출시 조희성님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 직책으로 승격되었다. 조희성님이 통역관 겸 검독관으로 일하면서 부정사건이 거의 사라져 버렸는데 한번은 집에 들어와서 보니 5억원이라는 거금이 방안에 놓여 있었다. 5억원이라면 당시 부산에서 몇백만 안가는 거부가 될 수 있는 거금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평소 몰욕이 손뼉만치지 않는 사람인자라 그런 것에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돈을 써가지고 다음날 출근하니 아니냐 다들 뭐 한 트러 운전수가 손목시계를 가득 신고 나가면서 눈을 깜빡 깜빡거리리는 것이었다. 주님은 차를 세워 장문으로 돈을 던져주며 물건을 원 위치로 돌려놓았다. 이 일이 알려지자 미군들은 당신같이 훌륭한 청년이 있느냐 하면서 감동했던 바 있었다.

개운조사가 환적암에서 잠도 자지 않고 금식하는 가운데 참선 수행할 때 사나운 호랑이가 뒤쫓아오는 것을

이긴자 일대기

겪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조희성님도 서울역 근교에 막다른 양동 골목에서 벽을 등지고 쫓아오던 강패 열다섯 명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강패들은 모두 손에 번뜩이는 단도를 들고 있었지만 조희성님은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주먹으로 그들과 격투를 벌여야 했다. 당시 군인 장교였던 조희성님은 상대방의 어깨를 밟고 공중으로 날아다니면서 몸을 거꾸로 한 바퀴씩 회전하면서 두발당상치기로 모조리 때려눕혔던 것이다.

관상, 얼굴에 당사자의 마음이 그려져 있어

노고산 정상에 오만제단이 있고 그 산자락에 밀실이라는 곳에서 해와 이긴자가 여러 사람을 전도하여 이긴자로 키워냈지만 다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는 고된 종교노동과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환경에서 먹지도 못하면서기도 생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긴자 후보자들은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첫 단계의 자유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쳐 버린 것이다. 그러나 조희성님은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뒤돌아보는 음란죄'가 된다는 해와 이긴자의 가르침을 듣고 이 말씀은 전도관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수준 높은 단계에 있는 자유율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무리 예를 쓰고 기를 쓰고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봤지만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끝내 20일 만에 과거를 생각하여야 할 수 없는 단계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여러 단계의 연단의 과정을 받고 50살에 나를 의식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이긴자가 되었다.

우연이 아닌 연기법(緣起法)으로 반주하면, 미륵부처님으로 오신 조희성님이 밀실로 들어가서 해(1978년)에, 불공화상이 개운조사에게 150년 이후에 세상에 전해야 할 책이라고 했던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이 과연 150년간의 세월이 흘러 1978년 무오년(戊午年) 3월 20일에 발행되었다. 발행인은 계룡산인(鷲龍山人) 박제산(朴齊山)으로 인쇄되어 있다. 제산 선생은 자강(自彊) 이석영(李錫暎-1920-1983년), 도계(陶溪) 박재완(朴

在元-1903-1992년) 등과 함께 현대 사주명리학의 3대 거목 중 한 명이었다. 제산 선생은 이미 서른 중반에 삼성이병철 회장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삼성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관상을 봐주었다는 인물이다. 그렇게 뽑힌 사람들은 삼성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충실했다고 한다.

감로는 정옥의 불길을 진입하고 성불케 한다

鷄籠石白非公州(계룡석백비공주)요 平砂之間真公州(평사지간진공주)라 - 격양유록 鷄籠歌(계룡가) 계룡산의 흰 돌은 충청도의 공주에 있는 것이 아니요, 부평과 소사 사이에 있다는 예언대로 흰돌이 되는 소사(素砂)에서 "하늘의 조씨가 중생들의 죄를 사해주고 구원한다(赦罪天曹救衆生 사죄천조구중생 - 「미륵진경」)"라는 생미륵부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북방불기 3천 7년(서기 1980년) 이듬해부터 시작되었다.

1987년에 남양철학원 김 원장님이 승리제단에 와서 사무실에서 주님을 처음 뵙는 순간, 입산하여 머리 깎고 불도에 귀의하여 기도 생활을 통해 얻어진 영감으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한다. 첫 대면 후에 예배를 보는데 손뼉치고 찬송하는 예배 분위기가 몹시 낯설고 거부감이 들었는데, 보살마하살의 예배 형식이 나 설교가 선교식(기독교식)으로 하기에 불자들이 땀을 흘릴 것이라는 불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심경이었다. 그런데 단상에 계신 주님 배 부위에서 불이 나와 점차 불기둥처럼 커지더니 그 불기둥이 주님의 몸을 싸고돌며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21일을 출석하고 제단 나온 지 한 달 정도 되어서 줄곧 앉아 있던 위장병과 변비 그리고 몹시 손발이 저려오는 증세 등이 말끔히 나아버렸다. 예전에 큰 범로도 많이 들어보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아말로 생명에 찬 신의 진리 말씀이요 인류를 영생케 하시고 성불(成佛)케 하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비결임을 깊이 깨달았다. (승리회보 제94호 『입문수기』에서)

생미륵불이 내리는 감로이슬성신은 '선불가진수어록'의 핵심 요지가 되는 여자의 잠적룡(潛寂龍)과 남자의 항백호(降白虎)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여 하체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고 몸이 무너지지 않는 부처님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영원무궁토록 생명의 빛을 발산하게 한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성경 속의 진짜 하나님 말씀 9탄

The True Word of God in the Bible - Part 9

천국론: 천국은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이다

Theory of Heaven: Heaven is a heart reborn by the Holy Spirit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누가복음 17:21) You cannot say, "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or there is it; it is in your hearts." (Luke 17:21)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하나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합동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입어" 3절) High mountains, rough fields, booths, palaces, wherever my Lord God is gathered, it is heaven (Joint Hymn "My soul is blessed" verse 3)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고린도전서 3:16) Do you not know that you are the temple of God and that the Holy Spirit of God dwells in you? (1 Corinthians 3:16)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Unless a person is born of water and the Holy Spirit, he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John 3:5)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태복음 18:3) Unless you turn and become like children,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Whoever humbles himself like these little children is in the kingdom of heaven (Matthew 18:3)

천국은 힘씀으로 얻느니 힘쓰는 자는 뵈었느니라(마태복음 11:12) The kingdom of heaven is obtained by hard work; those who work hard take it away (Matthew 11:12)\*

by Alice